

1. 서언

‘창조질서’란 말은 기독교나 유대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용어와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아도 창조질서란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는 고대근동사회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신들이 우주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우주는 신들의 다양한 기능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보존된다고 믿었다. 그들의 삶의 형태는 우주의 질서를 반영한 것으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전과 왕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제도를 두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된 세계를 유지하고 복구하는데 관심을 가진다(cf. Walton, 2006:185). 이집트인들은 창조신 ‘레’가 여덟 신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함으로써 혼돈에서 질서(*ma'at*)를 가져왔다고 믿었다. 그들의 역사는 창조 시에 확고하게 세워진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었다(Currid, 1997:35-36). 반대로 무질서를 의미하는 *izfet*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을 의미한다. 고대인들이 가진 질서에 대한 강한 의식은 윤리적 의식을 갖도록 하지만 그 의식이 이스라엘의 율법과 같이 선과 악에 관한 명확한 표준을 제시하는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고대 다신론 사회에서 엄격한 윤리적 규정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대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헬라인들은 성경의 창조질서를 ‘자연법’으로 이해했다. 플라톤은 자연법에 맞지 않는 성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것’(διὰ τὸ μὴ φύσει)이라고 했다(Platon, *Laws* 8. 836c).

그래서 본고는 단순히 ‘창조질서와 동성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동성결혼’이라고 제목을 한정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질서란 말도 무한한 우주를 포함한 자연과 사물과 인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본고에서 인간창조와 그 사명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또 동성결혼이란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결혼을 말한다. 본 연구는 구약에서 말하는 창조질서 가운데 결혼의 원리와 관련하여 동성결혼의 가능성 여부를 살필 것이다. 그 절차는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관한 본문을 면밀히 주석하고서 동성결혼에 대한 성경적 결론을 내릴 것이다.

2. 본론

1) 하나님의 형상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

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 1:26)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창조기사의 특징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를 깊이 다룰 수는 없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은 인간이 최고의 피조물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 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대”(시 8:4-5)라고 했다.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자체는 하나님이신 신의 이미지를 물질로 표현한 것으로 들리지만 구약은 물론 고대근동에서도 이 형상은 직무와 신분과 관련된 자질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먼저 고대근동 전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신들의 형상’은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왕들에게만 적용되어서 그들이 신들의 대리자로 인식되었다(Walton, 2006:212). 즉 인간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규정하는 문헌은 구약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형상’(šēlem)과 ‘모양’(d^omūt)은 동의어를 나열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은 완전한 형상이지 본질적으로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다(신득일, 2011:225). 하나님의 형상은 로마교회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Bavinck, 2004:587).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고 이성을 가졌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과 기능을 반영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그분의 거룩, 공의, 참, 선하심과 같은 속성을 반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어있다(엡 4:24). 이 하나님의 속성은 총체적으로 언약적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대속을 죽음을 당하도록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물론 타락이후로 인간은 그 능력을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동원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시한다(골 1:15).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는 뜻이다. 이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알려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시고(요 4:34; 마 26:39), 이웃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고(눅 19:10; 막 10:45; 요 15:13) 자연을 통제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롬 11:36)으로 나타나셨다(Hoekema, 1986:73-75).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 지음받았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나가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신과 여신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안 된다. ‘하나님’이란 말이 ‘신’(^elō^ah)에 대한 복수(^elōhīm)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다수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제복수(pluralia intensivus)로 쓰인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야웨의 아내’란 문구가 적힌 석비가 발견되었다고 해서(Dijkstra, 2001:114-115) 하나님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듯이 야웨 하나님을 섬기는 타락한 종교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문법적으로 남성으로 표기되지만 창조주로서 성을 초월한 영이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윤리적 규범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 정의가 인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 삶이 하나님의 선한 속성에 부합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거스르는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창 2:24; 레 18:22).

2) 남자와 여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 1:26)란 표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adām)이 집합명사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지만 다음 문장에서 그 ‘사람’이 주어가 되는 동사는 복수로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yirdū). 즉 ‘사람’은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사람’의 실체는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사역을 묘사하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 1:27).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킨다. 즉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남자’와 ‘여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남성’(zākār)과 ‘여성’(n^eqēbā)을 가리키는 말이다. 종종 구약의 이 zākār 와 n^eqēbā 를 법적인 용어라고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 말이 동물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창 6:19; 레 3:1, 6; 4:28, 32; 5:6; 12:5).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생물학적인 용어로 봐야 한다.

남성을 가리키는 zākār 라는 말은 동종어군에서도 같은 어근을 가지고 나타난다: zik(a)ru (아카드어), dakaru (우가릿어), dikrā (아랍어), dakar (아랍어), dekro (시리아어).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우선 이 단어를 동사 ‘기억하다’(zākar)와 연관시키면서 남자는 추억을 만드는 능동적인 행위자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지지받기 어려워 보인다. 또 같은 철자의 상태동사인 ‘힘

있다'를 의미하는 *zākar* 에서 왔다고 보기도 하지만(*HALOT*, 270) 이것도 불확실하다. 이 말은 '뿔족한'이란 개념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앞에서 열거한 동종어 가운데 아랍어 *dakar*에서 확인된다. 즉 이 단어는 '남성' 또는 '남성성기'를 의미한다(Clements, 1980:83). 그래서 '남성'(*zākār*)이란 단어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한글로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n^eqēbā* (너케바)도 한 종(種)의 '여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 단어는 원래 '구멍' 또는 '터널'을 의미하는 *neqēb* (네케브)에서 왔다. 이 말은 플러그를 끼우는 소켓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성' 성기모양에서 온 표현(*genitalium figura dicta*)이다(Gesenius, 2003:564). 히브리어로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도 여자의 신체적 특징과 그 기능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어원적인 고찰은 남녀에 대한 구약본문의 언어적인 묘사는 다소 원색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 성적 기능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람은 본래 양성/자웅동체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과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으로 결합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 성적 차이가 번성의 복의 전제가 된다. 다른 피조물에는 단순히 가정된 것이 사람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가정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Bird, 1981:147).

창조기사는 전체적인 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과 가정은 처음부터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문은 남녀를 나란히 언급함으로써 남녀가 동반자로서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게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남성은 여성에 의해서 보완되고, 여성은 남성에게 의해서 보완된다. 즉 “혼자 있는 사람은 반쪽 인간일 뿐이다”라는 속담과 같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또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창조질서의 기본개념이다. 그러나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인한 공동체 개념에서 동성 간의 결합의 여지는 발견할 수 없다. '남성'과 '여성'은 나중에 언급될 사회적인 용어인 남자(*ʾiś*)와 여자(*ʾiššā*) 간의 기본적인 상호관계를 나타낸다(창 2:23). 이 창조질서의 관계는 바뀔 수도 없고 제거될 수도 없다.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3) 문화명령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문화명령'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그 자체로 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일이 곧 복이라는 말이다.

인간창조에 대한 언급에서 복으로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다. ‘생육하라’란 명령은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으라’(p^eru)란 뜻이다. 이 명령은 남녀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이 명령이 성립하려면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번성하라’란 명령은 ‘증가하라’ 또는 ‘많아져라’(r^ebū)란 뜻이다. ‘충만하라’란 말은 ‘가득 채우라’(mil^eū)는 말이다. 이 세 동사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과 앞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다음 명령의 내용을 성취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즉 자녀를 출산해야지 그 자녀들이 계속 출산하여 번성할 수 있고, 또 그 번성한 자녀들이 계속 출산해야지 인류로 땅을 가득채울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명령에 수행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이성간의 결혼을 통해서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과 명령하는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일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성 간의 결혼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이 명령이 최초의 인간이나 태고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조항이라는 말이다.

본격적인 문화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데서 구체화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어진 명령으로서 인간창조의 목적이 된다(창 1:26). 이 명령은 바로 앞의 명령, 즉 남녀의 결혼을 통한 반복되는 출산으로 사람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

‘정복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kābaš* 는 기본적으로 ‘밟다’(cf. 아카드어 *kabāšum*)에서 온 말로서 거의 모든 셈어가 이 단어의 형태와 개념을 공유한다(Wagner, 1995:52). 이 단어가 실제로 곡식을 밟거나 왕의 통치권을 묘사하는 말로도 쓰였다(왕상 5:4; 시 110:2; 72:8; 사 14:6; 겔 34:4). 그러나 창조기사의 문맥에서는 곡물이나 인간에 대한 통치가 아니라 ‘땅’에 대한 통치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땅은 앞에서 언급한 ‘그 땅을’(‘*et-hā’āreš*)에 대한 대명사 접미사(*hā*)로 묘사되었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물의 왕국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인간이 거주하는 세상에 대한 임무를 말한다(Wagner, 1995:54). 히브리어 동사 *kābaš* 가 ‘땅’을 대격으로 받는 경우는 이 본문이 유일하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아주 특이한 형태다. 여기서 ‘땅’을 환유법으로 이해한다면 ‘그 땅의 주민을 정복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창조된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으로 이해하기를 어렵다. 일단 ‘정복하다’는 단어를 앞에서 나온 명령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찬 사람들이 거주할 땅을 차지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그 땅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도권을 쥐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복하라’는 말이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난개발과 같이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창조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명령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다(창 1:28b).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삼계, 즉 바다와 하늘과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rādā*의 어원은 모든 셈어가 공유하는 표현이다. 어원과 관련된 아카드어 *redû*와 *radādu*는 각각 ‘동행하다’와 ‘뒤쫓다’를 의미한다. 히브리어 *rādā*는 ‘다스리다’ 또는 ‘통치하다’를 의미하는 *māšal*과 동의어다(창 1:16). 이 언어적인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스림이나 통치가 ‘지배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의 왕국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생물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왕국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인간이 청지기직으로 수행하게 될 ‘문화적 사명’은 좁게는 남녀가 함께 이루는 가정, 넓게는 사회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성 간의 결혼은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명령은 처음부터 이성간의 결혼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결혼동기

성경에서 결혼의 동기로 제시되는 본문은 여자를 창조하는 목적과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이 본문은 제2의 창조기사가 아니라 1장에 열거된 하나님의 창조사역 가운데서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창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창조의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1장의 창조기사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남자를 창조된 후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결과는 모두가 ‘좋았더라’로 평가되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온 피조세계를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tōb m e’ōd)고 하셨다(창 1:31). 그러나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lō tōb)란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원문: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 h^ēyōt hādām l^ēbaddō)이 좋지 않다는 말을 ‘나쁘다’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즉 독신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다(고전 7:8). 또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은데 아담의 상태가 ‘나쁜 것’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아담이 실패작이거나 결함이 있다든지 인간으로서 불완전한 상태라는 말이 아니다. ‘좋지 않다’는 말은 단지 인간 공동체를 이루는데 홀로 있는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다(cf. Gossai, 2003:546).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표현은 아담을 도울 배필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의 짝으로서 도움을 만들 것이다’로 할 수 있다. 사르나(Sarna, 1989:21)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배필의 기

능과 역할을 나타내지만 돕는 역할의 낮은 지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도움’(‘ēzer)이란 단어가 하나님께도 적용되기 때문이다(출 18:4; 신 33:7; 시 33:20; 70:6; 115:9-11; 146:5). 본문의 문맥은 배필이 필요한 상황은 일단 문화적인 사명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창 2:19-20). 고대근동에서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기능을 부여한다는 말이다(Walton, 2006:90, 93). 즉 동물에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사역에 배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동물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적인 사명수행의 일부 또는 대표로 제시된 것을 봐야 할 것이다. 이 사명은 남녀로 구성된 인간이 지속적으로 완수해야 할 것으로 이미 제시되었다(창 1:28). 그래서 그 “배필”은 넘어서면 일으켜주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배필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앞에 있는 것’이나 ‘마주대하는 것’이란 의미를 가지지만 본문은 예외로서 한 쌍의 적절한 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Garcia-López, 1998:175). 즉 결혼할 상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은 서로에게 배필이 되어서 상호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본문은 ‘돕는’(‘ēzer)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 공동체를 이룰 때만 가능해진다.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배필을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또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자 창조와 결혼의 동기로 제시하셨다. 그것은 이성간의 결혼을 의미한다.

5) 결혼대상자 창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창 2:21-23).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앞 절에 나오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말로 표현되었다. 문자적으로 ‘아담에게, 그가 자신의 짝으로서 돕는 자를 찾지 못했다’고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은 많은 동물이 있지만 인간의 짝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아담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특별한 신분을 알고 있었고, 또 그가 못 찾았다는 것은 스스로 배필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다는 뜻이다.

여자의 기원은 남자의 기원과 다르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자를 지으셨다(*bānā*). 베스트먼(Westermann, 1994:230)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한 것

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해리슨(Harrison 1969:555)은 ‘갈비뼈’로 번역된 히브리어 ‘첼라’(šēlā)는 문자적인 뼈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인격의 한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나중에 나오는 시적인 언어인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실 때 살을 추출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는 과정을 시적으로가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생생한 묘사는 해부학적이기도 하고 건축학적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꺼내시고 몸을 살로 덮는 것은 해부학적 표현이다. (여자를) ‘만들다’(bānā)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집을) ‘짓다’ 또는 ‘세우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로 지으셨다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이 본문에서 특이하게 쓰인 히브리어 동사 ‘바나’(bānā)를 ‘만들다’ 또는 ‘창조하다’로 창조의 용어로 경우는 아카드어 문헌과 우가릿어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그가 (달신) 신의 형상을 만들었다”(CAD b, 86): “엘은 피조물의 창조주다”(HALOT, 139).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신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근함의 신비와 여자가 남자의 삶에서 이상적으로 담당하는 불가결한 역할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었다. ... 그래서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한 그 갈비뼈는 육체적 연합과 그녀가 옆에서 동료와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arna, 1989:22). 하나님께서 여자로 남자에게로 인도하신 것은 결혼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어린 아이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를 지으실 때와 같이 여자를 결혼이 가능한 성인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중매자로서 그 여자를 신부로서 신랑인 아담에게로 인도하셨다. 그때 그는 “이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다. 다른 곳에서는 뼈와 살이란 말이 친척관계를 나타낼 때 쓰였다(창 29:14; 사 9:2; 삼하 5:1; 19:13-14). 그러나 아담이 시적인 표현은 여자가 실제로 자신의 뼈와 살에서 온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인간으로서 동물과는 달리, 같은 기반위에 있다는 의미가 있다(cf. Wenham, 1998:70).

아담은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라고 불렀다. 여기서 처음으로 남자(ʾiṣ)와 여자(ʾiššā)란 단어가 나온다. ‘남자’에 해당하는 ‘이쉬’(ʾiṣ)라는 단어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이 단어의 복수가 ‘아나침’(ʾanāšīm)인 것을 보면 ʾnš (아랍어 *atta*, ‘무성하게 자라다’)일 가능성이 높다(cf. Bratsiotis: 1977:222). 어원 ʾnš 에서 철자 ‘눈’(n)은 뒤따르는 자음에 동화되어 중복(ʾšš)이 되지만 모음이 없는 마지막 철자에는 중복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신득일, 2012:28). 그러나 단어 뒤에 접미요소가 붙으면 그 중복점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ʾnš 에 여성어미 ‘아’(ā(h)< at)가 붙어서 여자를 의미하는 ‘잇샤’(ʾiššā)가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원에 ‘눈’(n) 붙는 것은 ‘이쉬’(ʾiṣ)의 복수형(ʾanāšīm, ‘아나침’) 뿐만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단수명사 ‘에노쉬’(ʿenōš)에서도 나타나고(창 4:26). 여자의 복수형태인 ‘나침’(nāšīm)에서도 확인된다. 이렇게 여자(ʾiššā)는 남자(ʾiṣ)라는 말에 여성어미를 붙여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언어적으로 여자란 말이 남자란 말에

서 파생되었다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종종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대근동 사람들이 지닌 원형관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카드어의 언어유희에서 “남자”(awilu)라는 용어와 “신”(ilu)에 대한 용어를 연결하듯이 히브리어 또한 ‘잇샤’(iššah, “여자”)는 ‘이쉬’(iš, “남자”)로부터 취했다. 또 아담도 ‘아다마’(’^adāmā, “땅”)에서 유래했기에 아담(’^adām)도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나타냄으로써 원형적 성격이 지닌 단어유희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런 원형 관계의 연관성은 질서의식을 반영하고 사회에서 역할을 나타낸다(Walton, 2006:207).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질서라는 것은 양자가 같은 위치에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창 3:16).

6) 결혼원칙

결혼은 이성간에 이루어진다는 원칙은 이미 창조 시에 주어진 문화명령에서 전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 2:24). 이 구절은 성경에 최초로 언급된 결혼에 관한 언급이지만 첫 결혼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에 적용되어야 할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결혼원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이혼을 금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 19:5-6). 특별히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점을 덧붙이셨다.

이 결혼원칙은 세 개의 동사가 이끄는 문장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 동사들은 문법적으로는 미완료(*y^a’azōb*, 그는 떠날 것이라)와 완료형 와우 계속법(*w^edābaq*, 그가 합할지니라; *w^ehāyū*,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으로 쓰였지만 명령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남자가 결혼함으로써 부모와 같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결혼을 함으로써 우선순위가 아내와 자녀에게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남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지만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두 번째 동사가 두드러진다. “그의 아내와 합할 지니라”라는 표현이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신 원리를 따른 결혼이다. 이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 본문은 ‘아내와 합하라’고 했지 ‘아내의 역할을 맡은 사람’과 합하라고 하지 않았다. 즉 결혼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주시려는 복을 거부하는 것이다.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복은 남녀 간의 결혼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동성 간의 결합에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이 한 몸 될지니라”란 말에서 “한 몸”은 ‘하나의 육체’(bāšār ‘eḥād)로 표현되었다.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 말은 부부 간의 신비스런 연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선 조화로운 육체의 결합을 뜻하지만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부부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결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항상 피차간의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한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이성간의 결혼에 해당하는 것이지 동성 간의 결혼은 신체구조와 기능상 맞지 않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상태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묘사한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원칙을 따라서 결혼한 남녀 간의 결혼은 신성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동성간의 결혼과 성관계는 타락한 관계로서 당사자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롬 1:26-27).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시고 곧장 결혼을 허락하셨다. 그 결혼은 남녀 간에 성립되고, 결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문화적인 복을 누리는 출발점이 된다.

3. 결어: 요약

계약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관련하여 동성결혼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이유로 동성결혼은 허락되지 않았다. 첫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속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언어에서부터 이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적인 사명은 이성간의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넷째,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은 인간 공동체를 이루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결혼을 위해서다. 다섯째,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둘의 친밀함과 남녀 간의 역할을 나타낸다. 여섯째, 결혼의 원칙으로 제시된 명령은 남자는 자기 아내와 합해서 하나를 이루라고 한다. 여기에는 동성결혼의 여지가 없다.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디까지 규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논쟁거리가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주제가 다루어진다면 창조질서와 동성결혼에 대한 더 섬세한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신득일 (2011). 『구약정경론』. 서울: 생명의 양식.
- 신득일 (2012). 『구약히브리어』. 서울: CLC.
- Bavinck, H. (2004). *Reformed Dogmatics: God and Creation. Vol. 2*.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Bird, Phyllis A. (1981).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en 1:27b in the Context of the Priestly Account of Creation.” *Harvard Theological Review* 74:2. 129-159.
- Bratsiotis, N. P. (1977). “אֱלֹהִים,” ed.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trans. John T. Willi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Gelb, I. (1965).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CAD)*. Chicago: Oriental Institute.
- Clements, R. E. (1980). “אֱלֹהִים,” ed.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trans. David E. Gree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82-87.
- Currid, John (1997). *Ancient Egyp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Dijkstra, M. (2001). “El, the God of Israel—Israel, the People of Yhwh: On the Origins of Ancient Israelite Yahwism” Bob Becking et al., *Only One God?: Monotheism in Ancient Israel and the Veneration of the Goddess Asherah*, vol. 77, The Biblical Seminar.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81-126.
- Garcia-López, F. (1998). “אֱלֹהִים,” ed.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trans. David E. Gree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74-186.
- Gesenius, W. & S. P. Tregelles (2003). *Gesenius' Hebrew and 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Bellingham, WA: Logos Bible Software.
- Gossai, Hemchand (2003). “Divine Evaluation and the Quest for a Suitable Companionship.” *Crosscurrents* Winter. 543-552.
- Harrison, R. K. (1969).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Hoekema, Anthony,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MI: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 Koehler, L. et al. (1994-2000).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ALOT)*. Leiden: E.J. Brill.
- Plato (1903). *Platonis Opera*, ed, John Burnet. Oxford University Press.
- Sarna, N. M. (1989).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 Wagner, Siegfried (1995). “שֶׁבֶד,” ed.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trans. David E. Gree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52-57.
- Walton, John H. (2006).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Introducing the Conceptual World of the Hebrew Bibl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Wenham, Gordon J. (1998). *Genesis 1-15, vol. 1*,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Incorporated.
- Westermann, Claus (1994). *A Continental Commentary: Genesis 1-11*,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